

8월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2024 이름: _____ 목장/성경통독 소그룹: _____

8월	책 이름	매일 양식 성경
1 목	예레미야	1□ 2□ 3□ 4□
2 금	예레미야	5□ 6□ 7□ 8□
3 토		암송 렘23:5-6□
4 주	예레미야	9□ 10□ 11□ 12□
5 월	예레미야	13□ 14□ 15□ 16□
6 화	예레미야	17□ 18□ 19□ 20□
7 수	예레미야	21□ 22□ 23□ 24□
8 목	예레미야	25□ 26□ 27□ 28□
9 금	예레미야	29□ 30□ 31□ 32□
10 토	예레미야	33□ 34□ 35□ 36□
11 주	예레미야	37□ 38□ 39□
12 월	예레미야	40□ 41□ 42□ 43□ 44□
13 화	예레미야	45□ 46□ 47□ 48□
14 수	예레미야	49□ 50□ 51□ 52□
15 목	예레미야 애가	1□ 2□ 3□ 4□ 5□
16 금	에스겔	1□ 2□ 3□ 4□ 5□
17 토	에스겔	6□ 7□ 8□ 9□
18 주	에스겔	10□ 11□ 12□ 13□
19 월	에스겔	14□ 15□ 16□ 17□
20 화	에스겔	18□ 19□ 20□ 21□ 22□
21 수	에스겔	23□ 24□ 25□
22 목	에스겔	26□ 27□ 28□
23 금	에스겔	29□ 30□ 31□ 32□
24 토	에스겔	33□ 34□ 35□ 36□
25 주	에스겔	37□ 38□ 39□
26 월	에스겔	40□ 41□ 42□ 43□
27 화	에스겔	44□ 45□ 46□ 47□ 48□
28 수	다니엘	1□ 2□ 3□
29 목	다니엘	4□ 5□ 6□
30 금	다니엘	7□ 8□ 9□
31 토	다니엘	10□ 11□ 12□

예레미야

* 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이다(1:1). 그는 요시아 왕 재위 13년(주전62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1:2)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주전586년) 40년간 사역을 했다.

* 주제: 죄와 우상숭배에 머물며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여,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온갖 멸시와 핍박을 눈물로 견디며 선지자의 길, 곧 소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간다.

예레미야 애가

* 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 살육당한 백성, 끌려가는 포로, 생존자들의 처절한 절망을 바라보며, 눈물에 젖은 다섯 편의 시를 지어 노래한다.

* 주제: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고, 그의 백성이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 그리고 소망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에스겔

* 저자 에스겔은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략 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원래 제사장이었던 그는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 성전에서 섬길 특권은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맡기신다(1:1-3).

* 주제: 이미 2차 침입을 받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조국 땅에서 조국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마른 뼈 같이 죽은 백성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군대로 다시 일으키신다(37:1-14).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며(40-42장),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10장) 새 성전에 다시 임할 것이다(43:1-12).

다니엘

* 저자 다니엘은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입 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후에도 다리오 왕 통치하에 다시 중요한 자리에 오른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다. 그의 이름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고(1:8-16, 6:4-24)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높이셨다.

* 주제: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있고, 바벨론, 바사(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오고 갈 것이지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진행하셨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나라가 결국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2:44, 마4:17, 요18:36-37). 그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